

## New Leader IV.

### 약함과 깨어짐을 아는 리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 1. 두 리더 (사울과 다윗)

성경은 두 지도자를 선명하게 대비한다. 사울과 다윗이다. 사울은 하나님 없는 죄인의 상징이다. 다윗은 극명하게 그 반대가 된다. 두 사람 모두 지도자이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과 세계관을 명확히 대비해서 보여준다.

#### (1) 사울

[사무엘상 14:52]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모았더라 (개역개정)  
52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 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 들였다 (새번역)

#### ㄱ) 전쟁과 같은 인생

사울의 일생을 '블레셋과의 치열한 싸움'으로 표현한다. 맞는 말이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은 전쟁터와 같다. 전쟁은 살고 죽느냐의 싸움이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다. 전쟁은 쉽지 않다. 총력전을 해야 한다. 전쟁은 실험이 아니다. 예행연습이 없다. 현실이다. 전쟁의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라는 점이다 (인생이기 때문). 사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한 삶인지를 보여준다. 오늘 그와 같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 ㄴ) 힘으로 강해지리라

결국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답은 '강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결정했다. 힘센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불러 모았다. 바로 이 구절이 사울의 세계관이다. 사울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지배된 세계관이였다. 다윗이 전쟁터를 나가려 하자 다윗을 막았던 논리도 '골리앗은 용사이고, 너는 소년'이라 말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쟁에 몰뭇돌로 나아가는 다윗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말한 사람이 사울이다. 이 모습이 하나님 없는 죄인의 세계관이며 형상이다. 힘의 출처를 세상에 두었다. 다윗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지만, 사울의 싸움은 '자신의 힘'이다. 결국 사울과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할 공간은 없다. **왜 강해지려 할까? 약한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무너뜨린 사탄의 거짓말과 미혹이 '너희는 하나님 보다 못한 존재'이다. '부족한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강해지라고 말한다. 위로부터 오는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라 말한다. 자기를 통한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 의로 짝 차버린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그래서 사울은 껍데기이다. 결국 사울의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다. 힘이 없으니 사울이란 존재는 껍데기이며, 그가 쓰고 있던 왕관은 고철과 다름없다. 세상에서 마련한 리더의 자리는 '자기 힘'으로 만들어진 자리이다. 그런데 그 자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힘이 있는 동안 만이라는 사실. 한계적이며, 한시적이라는 사실이다.

#### ㄷ) 눈에 보이는 대로

사울을 보라. 눈에 보이는 대로 불러 들였다고 되어 있다.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인생이다. 성도는 보여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아야 한다. 사울의 삶을 보라. 게으른 삶이 아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전쟁 중에 살기 위해 눈에 보이는데로 강한 자를 불러 모은 사울의 열심을 생각해 보라. 그러나 결국 사울은 가장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의 결말을 맞는다.

#### (2) 다윗 (자기 열심이 아닌 충성) - 약함을 의지

[사무엘상 22:1-2] 1 그러므로 다윗이 그 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1 David left Gath and escaped to the cave of Adullam. When his brothers and his father's household heard about it, they went down to him there. 2 All those who were in distress or in debt or discontented gathered around him, and he became their leader. About four hundred men were with him.

하나님은 다윗을 '뉴리더'로 부르신다. 뉴리더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아들람'이 답이다. 하나님은 아들람에 있는 연약한 자를 다윗의 용사로 만드신다. 다윗에게는 사울과 달리 강한 자, 용감한 자가 없었다. 모두가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연약한 인생들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아들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보내셨다. 성경은 다윗이 아들람에서 '우두머리' (리더)가 되었다 말한다. 놀라운 말씀이다.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다. 자기도 도망자 신세이다. 다윗에게 능력은 없다. 가장 연약한 상태이다. 이런 연약한 다윗의 인생에 연약한 자들이 올려진 것이다. 여기에 비밀이 있다.

## 2. 자기 열심이 아닌 충성

### (1) 죄인 된 자아의 속성 - 자기 열심

하나님이 없는 자기 야망은 '자기 열심'을 만들어 낸다. 왜 그렇게 열심히 힘을 모으는가? 그 이유는 선명하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바벨탑이기 때문이다. 내 왕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아'의 속성을 아셨다.

결국 자기 것을 이루고 싶어하고, 자기를 뽐내고 싶어하는 자아의 힘을 아셨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거절하고 비워 낼 수 있는 사람이다.

### (2)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 - 충성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талант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자기 약함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약함을 알게 하신 것이다. 아들람 굴에 모인 모든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사람의 힘이 약해진 그곳이 하나님의 힘이 강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충성'을 할 뿐이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충성을 다할 뿐이다. **'열심과 충성은 다르다' - 열심은 자기를 위한 것이고,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리더는 '충성된 사람'이다. 자기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충성할 수 있는 것이다. 충성된 자는 말이 없다. 묵묵히 살아내고, 행하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

### (3) 충성된 자에게 부여하시는 축복 -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21]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

충성된 자를 사용하신다.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에게 달란트 (달란트- 재능, 은사)를 주신다. 악하고 게으른 종 vs 착하고 충성된 종 -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재능을 더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결국 충성된 자가 '재능'을 받는다.

하늘의 재능은 다스릴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은사의 개념이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사역을 위해 주신다) 놀라운 사실이다. 하늘의 재능과 은사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루신다. 다윗은 아들람의 연약함을 통해 '충성'을 배웠다. 연약한 저들이 전쟁을 이기는 가장 강한 용사들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능력으로 싸우는 존재들이 되었다.

## 3. 가는 곳마다 이기더라.

[사무엘하 8:14]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사람들이 뉴리더 다윗이다. 이것이 비밀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자. 우리가 할 일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할 뿐이다. 결과와 성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늘의 재능과 능력을 받는 그 충성된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다.